

빛장을 여는 사람들

중재 신청 이유 (11PP1, 김경아, 박영남)

본 언론중재신청인인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97년 5월 22일자 25면 "매맞아 죽은 여자 위령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합니다.

본회는 지난 97년 5월 21일 낮12시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여성단체에서 주최한 이 위령제에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기사 중간에 ".....휠체어에 앉아 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눈물을 비치더니....."라는 내용과 더불어 작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본회 회원의 얼굴이 보도 사진 속에 찍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였던 본회의 회원들은, 특별히 보도사진에 얼굴이 비춰진 회원은 어리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를 갖게 되었지 가정폭력을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설명을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참여단체 소개서에 주최측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알린 바도 있습니다.

본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피해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 행사 참가 회원, 여성단체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기자는 행사장에 취재를 나간것도 아니었기니와 사실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 기사가 검토없이 그대로 보도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진에 실린 회원은 물론 행사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본회의 당혹스러움입니다. 더구나 아직 미혼임에도 받을 수 있는 불명예스런 오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셋째,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지만 모습 그대로 비장애인과 같은 감정의 크기로 살아가는 일상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확대시켜야 함이 마땅함에도 언론의 일선에 있는 기자로서 장애인을 문제의 대상으로 단순하게 보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현재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모순과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사회가 장애인에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 기자라는 신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짐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위의 사항들로 인해 본회는 본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언론에 의지되기는 커녕 우려를 표명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합니다.

정 정 보 도 문

본지가 지난 5월 22일자 25면에 "매맞아 죽은 위령제" 제하의 기사에서 중간에 ".....휠체어에 앉아 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눈물을 비치더니 곧 행사장 이곳저곳에서 호느끼는 소리가 세어나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휠체어에 앉아 있던 장애여성들은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의 회원들로서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위령제에 참여한 것이지 가정폭력으로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어 제시하고 장애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빛장을 여는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진하며, 앞으로 한겨레 신문은 장애인들을 표현함에 있어 신중한 것이며 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재 없이 장애여성들로써 감상적으로 기사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